

# “여수산단 유해물 방재센터 만들자”

## 市, 구미 불산 사고 계기 환경부에 건의...안전관리체계 강화키로

### 전남도 유독물 취급업체 실태조사·총리실 합동점검

여수시가 최근 발생한 경북 구미 국가산업단지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여수 국가산단에 대한 집중 안전 관리에 나섰다.

여수시는 지난 17일 환경부에 여수 산단 유해화학물질 재난방재센터 설치를 건의했다. 이와 함께 여수산단 석유화학업체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유해물질관리와 방재장비 정비, 유해물질 입·출하 때 안전관리자 배치,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일체화 등을

당부하는 공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뿐만 아니라 재난대비 경연대회, 유관기관 합동 안전기술 세미나 개최 등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응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산단(오천·화양) 입주업체 대상 안전점검(18~26일)과 지식경제부·환경부·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합동점검에 나섰다. 전남도는 다음달 말까지 영산강유역환경청, 소방

서 등과 함께 여수산단 유독물 취급업체에 대한 안전관리실태, 방재장비 보유 현황 등 합동 점검에 들어갔다.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는 국무총리실 주관의 합동점검이 강도 높게 실시된다.

한편 소방재청은 지난 16일 긴급점검에 나서 이기환 청장이 여수산단에서 유일하게 불산을 취급하는 한국실리온(주)을 방문, 재난 대비책 등 실태 파악을 했다. 이에 앞서 여수시도 지난 5일 한국 실리온을 자체 점검했다. 한국 실리온은 구미 국가산단(농

도 98% 이상)과는 달리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농도 49% 제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각종 장비와 누출에 대비해 독립된 공간을 갖추고 있어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수시 관계자는 “여수 산단은 대규모 화학공장이 가동되고 있어 설비 노후에 따른 대형 재난발생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이번 합동 점검 등의 결과에 따라 사고 발생시 신속한 상황전파와 대응으로 재난 최소화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임문택기자 mtim@



“웰빙 고흥석류 드셔 보세요” 고흥군 두원면에 위치한 고흥 석류향토사업단에서 수매한 석류를 크기별로 분류하고 있다. 올해 고흥지역은 총 132ha에서 석류 505t을 생산, 35억원의 농가소득을 예상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주각중기자 gju@

# 목포시의회 관광성 외유 강행 빈축

### 의원 10명 4박 5일 일정 中 해외연수

목포시의회가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해외 연수를 강행해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이번 시의회 해외연수는 1년에 한번 선진지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공식 행사이지만 의원들의 연수와는 동떨어진 사실상 ‘관광성 시찰’이라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시의회 10명은 16일부터 20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중국으로 국외 연수를 떠났다. 1인당 180여만원의 예산을 들인 이번 연수에서 의원들은 북경을 비롯해 면산과 태원시 등을 방문한다.

하지만 북경대 캠퍼스를 비롯한 북경진수도박물관, 도시계획관을 방문

하고 북경 구도심을 탐방하는 것이 목포시 관광·교육 발전을 위한 벤치마킹과 연계성을 찾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게다가 진정한 의미의 의원연수라면 의원 전원은 아니더라도 의원들 대다수가 참여해야 하지만 22명 가운데 과반수도 못 되는 10명만 참여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번 연수에 불참한 A의원은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있는 예산인데 쓰고 봐야한다’는 말을 듣고 쓸쓸했다”면서 “해외연수 예산이 세워졌다고 해서 꼭 집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불참한 의미를 살리기 위해 북경관에서 4일 동안 ‘밥퍼

봉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또 B의원은 “중국을 간다면 목포~중국 간 카페리 항로 개설이 추진되고 있는 의미를 살려 중국 기항지인 상하이 근처의 태창항과 일조항 등을 둘러보는 프로그램으로 짜여진 길 희망했지만 반영이 안 돼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목포시의회 관계자는 “북경과 지방도시 면산 투어를 통해 목포시 도시경관과 관련한 원도심 활성화에 접목시킬 수 있는 사례들을 직접 보고, 또 중국의 축제추진위원회와 관광 담당 기관을 방문해 목포축제는 물론 관광 정책 등을 비교 분석해 목포시에 접목시키는데 이번 연수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서부취재본부=고규석기자 yousou@

### 막여과 처리시설로 축산폐수 완전정화 K-water 나주관리단

K-water(한국수자원공사)가 자연친화적 폐수처리 공법을 도입, 해당지역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K-water 나주관리단(단장 임영택)은 나주시 노안면에 위치한 축산폐수 공공 처리시설을 위탁받아 운영중이다. 집단 돼지사육 농가에서 배출된 축산폐수는 악취로 인해 민원발생이 많은데다 오염농도가 생활하수에 비해 100배 이상 높아 고도 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나주관리단은 축산폐수 공공 처리시설에 오염방지 효과적이고 수질관리를 위해 전국최초로 미생물 균을 활용한 ‘막여과 처리시설’을 도입했다.

나주 관리단은 자연친화적 이면서도 유입수질이나 미생물 상태에 관계없이 방류수질을 법정기준 이하로 일정하게 유지시켜 수질개선과 영산강 지천으로 방류되는 오염원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나주 관리단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와 환경업체에서 처리시설에 대한 운영 노하우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많이 찾고 있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정철현기자

# 장흥·담양 공공도서관, 목포 향도여중 전국 도서관대회 문화관광부 장관상

장흥 공공 도서관(관장 박경석)과 담양 공공 도서관(관장 권남익), 목포 향도여중이 1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제49회 전국 도서관 대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각각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 정책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실시된 ‘2012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결과로서 장흥 공공 도서관은 공공도서관 부문, 담양 공공 도서관은 이용자 만족도 부문, 목포 향도여중은 학교도서관 부문에서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는 지난 2007년 도서관정보 정책위원회의 발족을 계기로 시작돼 5회째 시행되고 있다. 올해는 전국 1만4552개 도서관 가운데 총 3123개 도서관이 참여했다.

장흥 공공 도서관은 ‘책으로 여는 문림(文林)장흥’을 위한 독서진흥 프로그램과 다문화도서관 기증사업, 문화

### 농협 전남지역본부 제주 유통업체 초청 전남쌀 산지투어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조영조)가 제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전남 쌀 소비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지난 15~16일 전남 쌀의 주요 소비처인 제주도 유통업체 관계자를 초청해 국제 농업 박람회장과 전남 일원에서 전남 쌀 산지투어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는 제주지역 쌀 유통량의 30%를 점유하고 있는 전남 쌀 소비를 확대하는 한편 날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제주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판매확대를 위해 제주지역 유통업체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전남 쌀 소비확대를 위해 제주도 유통업체 관계자를 초청해 ‘친환경 전남쌀 산지투어’를 실시했다.

이원호 경제 부분부장은 “제주시장의 지속적인 관리와 타 지역에 비해 우수한 품질의 쌀과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전남의 지리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해 제주도의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 민·경 손잡고 범죄예방 총력 완도경찰 사회단체와 야간순찰

최근 전국적으로 강력범죄와 성폭행 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완도경찰이 사전 범죄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완도경찰서(서장 양성진)는 사회단체와 함께 조를 편성해 특별 방범 비상근무와 정기적인 순찰활동을 통해 범죄 예방과 함께 기초중지자 등 검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사진> 특히 양 서장은 주·야를 가리지 않고, 일요일도 반남한체 경찰서 행정 경비정을 타고 직접 각 읍·면 섬을 순시하면서 현지 지휘를 하고 있다.

양 서장은 주민들과 격의없는 대화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범죄 신고요령을 홍보하고 학교주변과



부두 등지에 설치된 방범 CCTV 파손여부까지 꼼꼼하게 살피며 밤 늦게까지 관내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양성진 서장은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완도 안전 지킴이’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일선 지·파출소 직원들에게 농·수산물 절도에 방 순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 제39회 고창모양성제

## 2012.10.19 (금) ▶ 10.23 (화) 고창읍성 및 시가지 일원

10.19 전야제(기념식, 거리 퍼레이드, 불빛 쇼 등)  
10.20 KBS전국노래자랑, 원님 부임행차 등  
10.20~10.22 답성놀이, 병영문화 체험, 축하공연 등